

지역 소식통

김제중앙중학교 중앙회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김제사람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지난 4일, 김제중앙중학교중앙회로부터 지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김제중앙중학교 중앙회는 2017년 창립되어 매년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친목 및 동문회로 올리는 특히 관내 학교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김제사람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성태 김제중앙중학교 중앙회장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품고 김제의 빛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후학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사람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 학생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나눔으로 실천에 감사드립니다"며, "우수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펼치겠다"고 화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진봉면 복지기동대  
방풍막 설치 등 봉사 펼쳐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가 지난 4일 겨울철을 대비해 저소득층 10가구에 방풍막 설치 및 수도 동과 방지 단열재 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겨울철 한파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방풍막 설치를 통해 실내 온도 유지를 지원하고, 수도동 통과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양곤 복지기동대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을 내어주시는 대원들에 감사드립니다"며 "우리들의 작은 노력으로 이웃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윤준병·박정 예결위 소속 의원·안호영 의원 등 면담... 신성장사업 예산 적극 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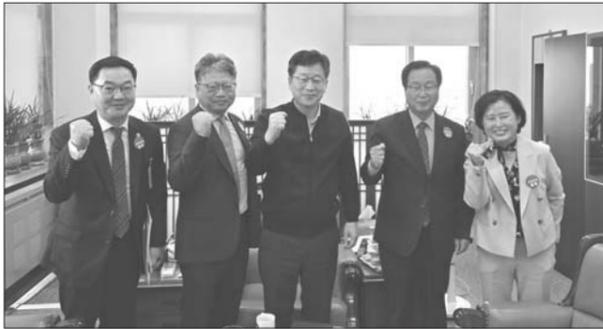
유희태 완주군수가 수소 산업을 비롯한 완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일 유 군수는 국회를 찾아 윤준병, 박정 국회의원 등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 핵심 청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 연고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완주군 주요 사업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 군수는 면담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유지한 '수소도시 완주'에 전폭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완주는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지라는 점과 전라·충청권 수소 중심 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수소상용차 확대 보급 정책에 따른 수소차 안전검사센터 구축 필요성과 수소전기차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의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및 제조 지원 사업'의 경우, 사용 후 연료전지의 보급 증가와 연



5일 유 군수는 국회를 찾아 윤준병, 박정 국회의원 등 예결위 소속 의원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 연고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완주군 주요 사업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료전지 스택의 재사용·재처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설 내 필수장비와 설비 확보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환경부의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등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유 군수는 "완주군이 미래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등 신성장 산업이 반드시 육성돼야 한다"며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와 내년도 국제 감소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완주가 대한민국 대표 수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군, 제25회 국창 권삼득 국악대제전 성료

권삼득 선양행사·풍류대장 콘서트·로컬존 편의시설 등... 방문객들 호평 받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완주군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국창 권삼득 전국국악대제전'이 3일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권삼득 생가에서 열린 '권삼득 추모제'를 시작으로 △조선 합창이 with 2024 풍류대장 콘서트 △권삼득 달령제 장기자랑 △권삼득 소리길 투어 △달령제 포토존 △권삼득 미디어체험관 △권삼득 삼합시마당 등 3일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제11회 권삼득 국악대제전의 권삼득상 수상자이자 JTBC 풍류대장2에 출연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최예림이 이번 풍류대장 콘서트에 출연해 큰 관심을 받았다.

경연대회에는 총 174명이 참여하였으며, 최고상인 권삼득상(국회의장상)에는 중앙대학교 1학년 안현태 군(20세)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인 종합대상에는 무용부문의 최유정 양(24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관소리, 무용, 기악, 타악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완주군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국창 권삼득 전국국악대제전'이 3일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등 4개 전통예술분야에서 45명이 상을 받았다.

또한, 완주미디어센터(센터장 안충환)는 조선비기비 권삼득을 다룬 방송다큐, 기획공연, 영상물 등 10종을 엮은 '권삼득 미디어체험관'을 운영해 관심을 끌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악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창 권삼득 국악대제전인 만큼 그 격에 맞는 추모제, 전야제, 선양행사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완주를 대표하는 예인이자 지역문화 브랜드의 중요 자원인 '국창 권삼득'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국악인의 등용문이자 대표적 국악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모범 소상공인 표창장 수여 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4일 김제시소상공인협회(회장 고영선)와 함께 하나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소상공인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김제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날은 매년 11월 5일을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김제지역 업종별·상권

별 회장단과 유관기관에서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가했으며, 기념식에서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소상공인 22명에게 도시사, 시장, 국회의원 등의 표창장 수여 시간도 가졌다.

고영선 회장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소상공인과 지역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2024 어울링더울링 한마당' 개최

9일 군청 어울림 잔디광장서... 30여개 공동체·지역주민 참여

공동체 1번지 완주군에서 공동체가 직접 준비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지역공동체 축제가 열린다.

완주군은 오는 11월 9일, 완주군청 어울림 잔디광장에서 아파트공동체, 마을공동체 등 30여 개의 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2024 완주군 지역공동체 어울링더울링 한마당'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각의 공동체들이 이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17개의 체험과 전시, 12개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떡메치기 △버블쇼 △포토존 △주사위를 던져라!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체험부스에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한 △김장김치 만들기 △친환경 설거지바 만들기 △빠빠로·진저깍개익 만들기 △반려동물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며, 체험료는 천 원에서 5천 원 사이로 저렴하게 책정해 참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모두가 '어울링더울링 한마당'을 기억할 수 있도록 '포토존'과 완주군의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서 뛰노는 '명랑운동회'도 준비되어 있다고 군은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5곳 선정

김제시, 도비 7억7000만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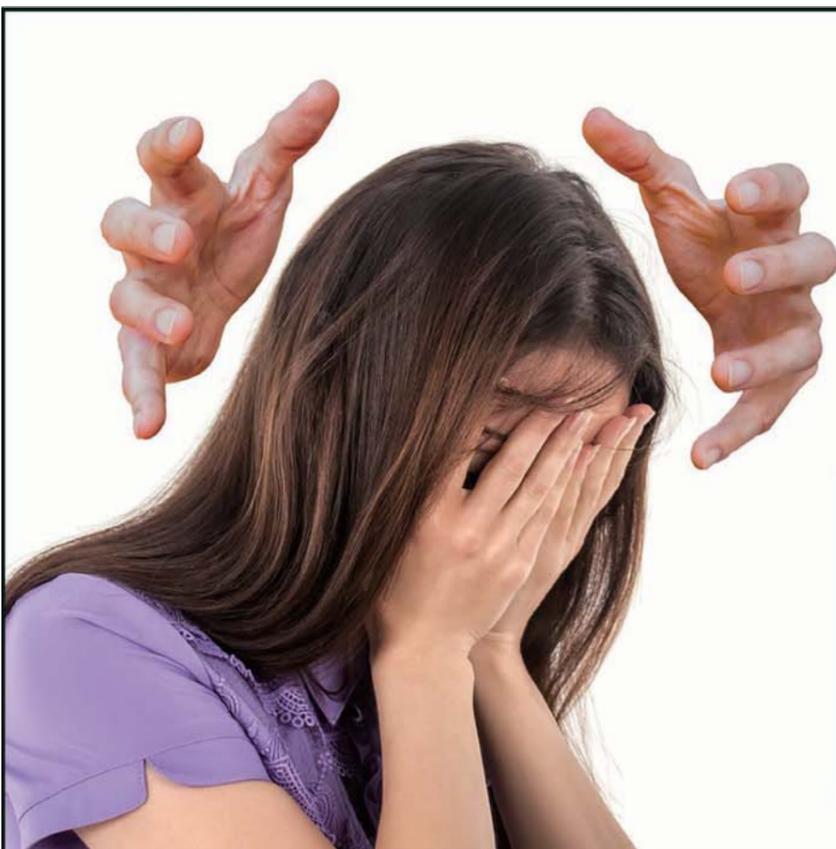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5개소가 선정돼 도비 7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해 18개소를 선정했으며, 이중 김제시는 전체비율의 27%인 5개소가 선정

돼 전북에서 최다 선정됐다. 총사업비 22억을 투입해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장비를 지원받는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즉시 농업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시설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청년리더교육 등을 병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